

# 保護와 利用의 사이

國立公園 운영의 요체는 그 보호와 이용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있다. 그러나 그 밸런스를 自然保護쪽에 몇% 公園利用쪽에 몇%로 固定해진 것은 아니다. 그 時代와 경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미묘한 조정을 해나가야할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실, 국립공원의 짧은 역사를 회고해보아도 保護와 利用의 밸런스는 어느때는 자연보호쪽으로 기울고 또 어느때는 공원이용에 역점을 둔 것같은 變動을 계속해온 것이다.

일본의 국립공원 초창기인 1930年代는 어느쪽이나 하면 利用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國立公園이란 未知의 것에 대한 原住民의 뜨거운 期待는 地域개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 그리고 2次大戰 후의 국립공원 역시 그와같은 답습에서 시발했다. 더우기 戰前과는 비교도 안되는 개발압력에 의해서 加速케된 것이다. 그동안 關係者들 가운데도 自然保護쪽으로 조금이나마 기울게 하려고 애를 썼으나 大勢는 高度經濟成長·國土개발이란 파도에 밀려 公園利用의 길을 범람시키고 만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에 접어들어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事態는 돌변했다. 자연보호가 강력한 世論이 되고, 그에대한 性急한 대응은 公園利用을 나쁘게 보는 極端의 風潮마저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 풍조

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환경문제가 조용해지자 그런 극단적인 여론도 둔화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經濟문제가 “클로즈업”되고 “보호와 이용”의 밸런스도 미묘한 조정을 하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른 것같다. 卽 국제경제의 불균형 시정이 焦眉의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되고 내수확대를 안팎으로 부르짖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國立公園도 또한 유력한 관광대상으로서 주목받게 된 것이다.

현재 내수확대의 큰 목표로서 대규모 “리조트”(觀光) 基地建設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으며 또, 대형의 보완예산의 편성도 서둘고 있다. 이와같은 시대의 추세에 즈음하여 國立公園은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選擇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갑작스럽게 公園利用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속단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頑固하게 문호를 닫고 자연보호의 동굴속에 몸을 숨기고 있어야만 할 것도 아니리라.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時代에의 對應을 위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국립공원의 보호와 이용의 미묘한 調和의 嚮를 신중하게 저어가야만 할 것이다.

[編輯者註：이 글은 日本 國立公園誌 87年 5月號에 실린 日本 國立公園協會 理事長 大井道夫씨의 글을 편집자가 번역한 것인데 우리에게도 많은 參考가 되는 내용입니다]



## 國立公園

景觀·傳説



孫鶴來 著

우리나라 국립공원들을 자상하게 소개하는 「國立公園—景觀·傳説—」이 출간 되었다.

국립공원의 설명에서부터 각공원별 탐방안내지도와 아름다운 경관들의 사진을 곁들여 일별할 수 있는 이 책은 숨은 공원자원으로서 사라져버리기 쉬운 「전설」까지 함께 엮었다는데에 특색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어야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공원지정기준과 함께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만 깃든 전설들을 모아엮어내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자취가 뚜렷.

국립공원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어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뿐아니라 공원탐방 일반인에게도 크게 도움되는 내용들.

국립공원의 일반적인 소개와 우리나라 18개(지정 예정인 小白山포함) 국립공원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국립공원—경관·전설—」의 저자는 건설부 자연공원과의 孫鶴來 사무관으로 실무와 답사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이고 흥미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엮었다. 삼한출판사 간행 523페이지 호화양장 값 6,000원. (寫眞·著者)